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일본 손보업계, 자동차 보험료 인상 예정

-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 7월 7일부터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참고순율(参考純率)을 평균 5.7% 인상한다고 발표함.
 -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가 과거 지급된 보험금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있는 참고순율은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 보험료(임의보험)를 책정할 때 자체 요율과 함께 적용하고 있는 요율임.
 - 손해보험회사들은 인상 요율을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, 이번 조치로 평균 2~3천엔 정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.
- 손보업계는 이번 요율 인상이 자동차보험시장의 침체로 인한 손해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음.
 - 일본에서 자동차보험은 전체 손해보험업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주력 상품이지만, 작년이후 심화된 경기침체와 신규차량 판매 부진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감소, 고령자 사고 증가로 보험금 지급 급증, 저렴한 보험료의 소형차 및 고할인을 계약자 증가 등이 자동차보험시장 침체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.
 - 손보업계는 이러한 자동차보험시장의 불황을 타개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율 인상을 요구해 왔으며, 그 결과 2000년 이후 9년 만에 참고순율이 인상됨.
 - 작년에 이미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한 바 있는 업계 1위인 도쿄해상이 이번 요율 인상으로 또다시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음.

(시사통신 7/7, 산케이신문 · FujiSankei Business I 7/8)